

“코스피 1만 간다” 외치더니… 외국인, 반도체 24조 매도

삼성 11조·하이닉스 10조 팔아
일부 증권사, 실적 둔화 가능성 언급
“AI 열풍, 닷컴버블과 비슷” 경고도

‘코스피 1만까지 갈 수 있다’고 외치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장바구니에서 털어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7~13일까지 5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24조원을 순매도했다. 반도체주를 집중해서 처분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여전히 “코스피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있다”, “코스피 1만도 가능하다”고 하고 외치고 있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걸까?

◆반도체 고평가·‘S’공포에 ‘팔자’

‘AI(인공지능)발 반도체 고평가’가 주범으로 지목된다. 최근 국내 증시 랠리는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최대 수혜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톱이 꼽히며 시장을 주도했다.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날도 SK하이닉스는 7.68% 오른 197만6000원, 삼성전자는 1.79% 뚫 28만400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최근 BNK투자증권, 키움증권이 향후 실적 둔화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낮추는 등 증권가 일각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내놓고 있다.

14일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 회담도 외국인 투자의 결심돌로 꼽힌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가 메모리 부족에 따른 AI 데이터 센터 구축 지연 우려로, 14nm와 7nm



코스피가 7844.01 포인트로 증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전 거래일보다 5000원, 14만1000원 오른 28만4000원, 197만6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장비(에 대한) 화흥 및 HLMC(의 구입이) 비공식 면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핵심은 비공식이라는 점에서 다음은 SMIC, 그다음은 CXMT·YMTC로 확장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다면 “한국 메모리에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간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다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16%, 0.71%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01% 급락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붐으로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파벳 두 글자(AI) 주제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이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999~2000년 거품의 마지막 달에 도달한 느낌”이라고 했다.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폴 튜더 존스 튜더인베스트먼트 창립자도 전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AI 붐에 기반한 뉴욕증시 강세장이 1~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현재 뉴욕증시가 닷컴버블로 정점을 찍기 1년 전인 1999년과 비슷한 분위기라며 강세장이 끝날 때 주가 하락 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주목을 받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외국인들이 최근 5일간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11조389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 순매도액도 10조29억

원으로 둘째로 많았다.

◆모건스탠리 “만 간다”, 빗투 리스크 확대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 매도세는 차익 실현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한국, 미국 증시 모두 주도주인 반도체주의 단기 과열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급 충격은 발생하겠지만, 이들 주가의 추세가 전환했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과 상승 피로 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 출회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IB들도 목표주가를 올려잡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가 구조적인 성장과 개혁 지속성으로 인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코스피 전망 범위를 6500~9500으로 내놓았다.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연말까지 1만도 가능하겠다고 봤다. 약세장 시나리오에서 하단은 6000으로 전

망했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은 경기에 민감하고 (산업·자재 등) 물리적 자산 비중이 크다고 인식되며 코스피에 불리한 요소가 됐지만, 정보기술(IT)을 비롯해 에너지안보·방산·재건·자동차 및 로봇 등 산업 사이클이 다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이번 전망의 근거를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AI 반도체 수요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올해 이익이 전년 대비 220% 급증할 것”이라며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 역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올 들어 한국 증시 상승세가 워낙 가장 가팔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빗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빗투’ 규모가 11일 기준 35조9985억원으로 불어나면서, 향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증권사가 담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하루 반대매매액이 올 들어 최고치인 694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의 일간 평균 변동률 확대되며 ‘물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8.57% 오른 76.15를 기록했다. 지난 3월 4~5일 기록(각 80.85·83.5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허정윤 기자



‘분기 1조 클럽’ 연 미래에셋증권… 기대와 경계 공존

스페이스X 투자 가치 상승 핵심 요인
하나·NH투자증권 등 목표주가 높게 제시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는 투자 의견 ‘중립’
‘글로벌 투자 플랫폼’ 체질 개선 주목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기록했다. ‘분기 1조원’이라는 상징적 실적을 넘어 스페이스X(SpaceX) 투자 성과를 계기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10여년간 추진해온 글로벌 투자 전략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대 경쟁사인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일부 증권사는 “주가가 이미 미래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해 미래에셋증권의 기업가치를 둘러싼 증권가의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드러났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목표주가를 9만5000원, 유안타증권은 9만3000원, NH투자증권은 11만원, 키움증권은 9만원으로 제시하며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증권사들은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과 홍콩 글로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출시, 미국 현지 증권사 인수 추진 등을 미래에셋증권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1조19억원을 기록하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미래에셋증권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 증권사가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자기자본투자(PI) 부문에서 약 8040억원의 평가이익이 반영됐으며,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 등 해외 혁신기업의 기업가치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이스X는 미래에셋증권의 혁신 기업 투자 전략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꼽힌다. 현재 장부가만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며, 미국 상장 시 최대 1조3000억원의 추가 평가이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실적 1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눈길을 끈 것은 최대 경쟁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의 혁신기업 투자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26년 예상 추가순자산 비율(PBR) 2.78배를 근거로 투자 의견 ‘중립(Hold)’을 유지했다.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최근 주가 급등으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판단이다. SK증권, iM증권, LS증권, 다올투자증권 등도 비슷한 이유로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비상장 기업을 아우르는 혁신기업 대상 투자가 다변화되고 있고, 관련

수익이 견조하게 발생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2026년 예상 추가순자산 비율(PBR)이 2.78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증권업계 1·2위를 다투는 대표적인 경쟁 구도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한국금융투자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미래에셋증권에 ‘중립’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의도에서는 양사의 평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시각차의 본질을 단순한 실적 경쟁보다 사업 모델의 변화 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박현주 박현주 회장이 10여년간 추진해온 글로벌 투자 전략이 일회성 평가이익에 그치지 않고 홍콩과 미국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이어질 경우, 미래에셋증권의 기업가치는 기존 국내 증권사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스페이스X 투자 수익이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며 “그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 논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올해만 29개 늘었다 순자산 1조 ETF 96개

국내 증시 훈풍 효과

순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이 100개에 달하고 있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증가 기준 순자산 1조원 이상인 ETF는 모두 96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ETF 종목 1099개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말 67개에서 29개 종목이 ‘순자산 1조원’ 대열에 합류했다.

순자산 1조원 이상 ETF 비중도 지난해 말 1058개 중 67개(6.3%)에서 2.4%포인트(p) 증가했다. 이 중 국내 주식형 ETF 43개가 1조원을 넘어 96개 가운데 44.7%를 차지했고, 해외주식형이 22개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ETF는 작년 말에는 각각 23개와 19개가 순자산 1조원을 넘어 4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1일 기준 해외주식형이 3개 늘어난 데 반해 국내주식형은 20개가 증가했다.

이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국내 증시 상승이 올해 들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내주식형 ETF로 자금이 대폭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지수가 올들어 각각 8.2%, 13% 오르는 동안 코스피는 지난 11일까지 상승 폭이 85%에 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